



예배순서

*영상에 따라 함께 예배드리시면 됩니다

예배인도: 허요환 목사

목 도 ----- 인도자

찬 송 ----- 달고 오묘한 그 말씀(200장) ----- 다 같이

- | | |
|--|--|
| <p>1.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후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p> | <p>2.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3.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맘에 용서와 평안을 끌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p> |
|--|--|

성경봉독 ----- 시편 91편 1-16절 ----- 인도자

- | | |
|--|--|
| <p>1.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2.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4.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5.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 하리로다. 7. 천 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8.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p> | <p>9.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13.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14.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p> |
|--|--|

설 교 ----- 믿음의 말이 가진 능력 ----- 허요환 목사

찬 송 ----- 공중 나는 새를 보라(588장) ----- 다 같이

- | | | | |
|--|---|--|---|
| <p>1.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어나</p> | <p>2.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이궁 속에 된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p> | <p>3.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p> | <p>4.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p> |
|--|---|--|---|

축 도 ----- 허요환 목사

[추석예배 설교문]

믿음의 말이 가진 능력 (시편 91편 1-16절)

우리는 매일 말을 하고, 또 말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말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격려의 말을 들으면 없던 힘도 생깁니다. 반대로 비판하는 말만 듣다 보면 어느새 자신감을 잃고 주눅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믿음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1편은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크게 보면, 1절에서 2절이 시인의 신앙고백을 담고 있고, 3절에서 13절은 옆에 있는 이들을 향한 축복의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인은 지금 누군가를 향해 믿음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은 자신의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것이 시인의 신앙고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고백이 먼저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앞세우지 말고 신앙고백을 먼저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선포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대하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시인은 1절에서 자신의 청중을 향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함께 모인 가족들, 그리고 신앙공동체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시인의 노래는 3절부터 13절까지 계속 축복의 언어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복을 일일이 나열합니다.** 시인은 의심 없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고, 그의 진실함으로 지켜 주신다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3절의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언어는 모든 것이 편안한 상태에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때에 더욱 그 힘을 발휘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에게 보응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천 명이 넘어지고 만 명이 쓰러지는 불안한 세상이지만, 재앙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9절은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입술도 변화시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인의 말을 들은 청중은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라고 덩달아 고백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온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그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고, 이웃의 입술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입술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화와 재앙으로부터 지키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지켜 주십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문제에 대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백성에게 침묵하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리라고 하십니다. 간구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여십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는 일, 축복의 언어로 이웃을 격려하는 일, 그것은 나를 바꾸고 옆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한 가운데 맞이한 추석입니다. 이런 때에 전심으로 믿음의 언어로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